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 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동 우 컬럼

부활절에 즈음하여

요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게 집값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생에는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저축해도 뛰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다.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저렇게 온갖 노력을 하는데, 천국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할까? 너무 싸서 그럴까?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일까? 만일 천국에서 거할 집도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오른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투자하고 투기할까?'

나는 가끔 기도원에 내려갈 때면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지는 달랑 가방 하나 가지고 간다. 집도, 교회도 다 놓고 간다.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또 해외집회를 다닐 때도 우리 일행에게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지. 집도 가족도 야 끼던 것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렇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이 세상 것들을 다 놓고 간다. 고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투자해야 할 곳은 죽음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상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하여 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 그곳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 부자들이 강남에 집을 사듯 그 집이 열두 진주문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곳에도 입지가 좋은 곳이 있고, 뷰가 좋은 곳이 있다. 고급 자재로 지어진 곳이 있고, 허름한 집도 있다. 영원히 사는 데 좋은 곳에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곳에서는 이사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애당초 제대로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천국의 내 집을 좋은 곳에 멋지게 짓고 꾸미도록 지금 투자해야 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이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면류관은 충성하는 자의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서 임직서원을 하는 직분자들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꼭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엄중하고도 감동과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많은 직분자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아침, 기자는 휴전선에서 남측으로 가장 근거리인 위치한 문산교회 공사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키즈카페였던 곳을 수리하여 성전으로 꾸미는 공사로 이미 보름 가까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해를 주셨다고 기뻐한다. 문산교회 담임인 장순천 목사님은 약 8년 동안 중국 연태지역을 오가며 중국 선교에 충성을 다하다가 중국 선교의 길이 막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약 1년 3개월 전쯤 총회장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 문산교회에 부임했다고 한다. 그리고 새성전 이전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합심기도하며 장소를 물색하던 중 보통 건물에 비해 내부 천장의고가 두 배 이상 높아 성전으로 쓰기에 적합한 곳을 찾았고,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 드리자 바로 진행하라 하셔서 수리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천장의 고도 높고 공사양도 만만치 않아 박인택 목사님은 교단 목사님들께 협조

접해도, 물 한 컵을 제공해도 내가 성전을 짓는 거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꼭 많은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게 아니다. 다섯 명, 열 명, 스무 명이라도 맡겨진 양떼를 잃지 않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늘 말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꾀부리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큰일도 맡겨주신다.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줄까? 아버지 일이나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주님을 대신하여 고맙고 사랑한다." 기자는 이런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분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을 그런 신앙으로 키



문산교회 성전수리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제자들 및 문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 한다. 아침부터 연장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내부로 들어가보니 놀랍게도 전국 각 지교회 담임목사님들이 찾아와 공사에 힘을 모으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공사를 이끄는 특공대장 박인택 목사님은 8년 전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암행어사 황금마패를 받는 꿈을 쫓아 이후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공사팀을 꾸려 지금까지 벌써 50여개 지교회를 수리해왔다고 한다. 공사전문가도 아니었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긴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에 오직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고 한다. 지금은 공사를 진행해야 할 현장을 한번만 둘러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나님께서 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와 공사에 힘을 모으고 있었다. 박인택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거저 되는 일이 없다며 장순천 목사님이 그동안 주를 위해 충성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앞에 꾀부리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는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약속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이날 목사님도 공사현장을 찾아 수고하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수요일예배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차비를 제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있다. 성전공사에 단 하루를 와서 도와줘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

운 목사님이야말로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언젠가 사택 일을 돕기 위해 찾아와 충성하는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고맙고 사랑해. 0장로는 뭐든지 맡은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그러자 그 장로님 대답이다. "목사님, 제 일이면 이렇게 안합니다. 하나님 일이니, 목사님을 돕는 일이니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말에 가슴이 찡하면서 '아,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생각하셨다고 한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장면 아닌가. 문산교회 성전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심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왜! 이 시대, 이 시간에는 주의 종들이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집사들도 능력이 있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했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되레 핍박할까요? 답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충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무슨 성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 모르니까’ 할 수 있지만, 목사나 전도사들 중에도 성령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의 눈이 동그라지며 “성령이 뭘니까?”(행19:2)하고 되레 반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자신이 성령을 안 받았으니 못 가르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눅6:39).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롬10:13).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신앙으로는 악한 것들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요 연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지만(마16:16),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신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공격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어찌 되었습니까?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겁쟁이 시몬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눅4:18).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나가서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권능이 나타납니

다(행1:8). 권능이란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그에 따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몸소 체험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그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의 웃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영이며, 지금은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곧 성령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성령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판 돈을 숨

기고 베드로에게 다 인양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고(행5:3), 이는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행5:4)?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성령, 곧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인격과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한하면 제한을 받으시고, 무시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말씀을 들던 자들이 배고플 것을 염려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주 부적절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뭘 사다 먹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

라다니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스스로 단정 짓고,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나 되는 부스러기를 남기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

리라”(요11:40)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적을 맞볼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돌을 옮겨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쥐꼬리만 한 지식,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말씀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는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스운 일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저울질하다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배운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발견되었기 때문 아닙니까(빌3:8~9).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행2:38). 그 성령은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아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등 특정인만 기쁨 부음을 받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벧전2:9). 왜냐하면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부음, 곧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일을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일을 해? 교만하네.”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늘 성령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노리겠고, 무엇이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겠고 방해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눅12:49)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있어있으면 빗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해도 당신이 성령을 제한하면 절대 성령의 능력을 맞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망치 소리 들리던 피로 물든 골고다 언덕,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과 소리치던 우매한 군중들은 돌아가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빛도 없는 어두운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복음이 아니라 위대한 성인들의 전기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15:23).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영웅들도 있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확신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

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나 출세,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전 10:31)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부활 신앙의 회복이란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돈을 좇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큰 기쁨과 산 소망의 찬송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상화평 목사

:: 신앙논객 ::

모두 드러나리라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다. 이제 제 기억나지도 않는 학생시절의 학교 폭력 가해전력이 드러나 한순간에 유명 인사에서 낙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나왔다가 별 반응 없이 묻힌 노래와 가수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음원차트와 방송순위를 석권하고 일약 스타가 되니 말이다. 전자도 후자도 자신들의 과거가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건물 안이나 길거리나 어디를 가도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각자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고 공유한다. 이제 누구와 통화를 하더라도 그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명세와 함께 자신을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 앞에 자신의 지난 과거를 엄중히 평가받을 준비까지 해야 한다. 이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시대가 됐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이 범죄예방이나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참 잘된 일

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에 묘한 긴장감을 주기도 한다. 세상도 이러한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우리의 앓고 일어섬과 마음의 생각의 어떠한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분이시다(대하16:9, 시 139:1~4).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外飾)을 주의하라 하고 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눅12:2~3)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랴. 이 땅에서는 어찌어찌 속이며 좋게 포장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낱알이 직고하게 될 것이다(롬14:11~12).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매사 조심하며 살자.

신혁주 전도사

부활

잘 익어가는 과일
떠날 준비 화장할 때
참 아름다움 생각해 보았나?
신부 단장과 무엇이 다를까

떠날 때 맛과 향기 남기고 사라지나
서글퍼 우는 것 못 보았네
밭그레 수줍은 듯 좋아라 웃드라
왜냐고 물으니
이 땅에 씨앗을 남김이 좋아서란다
나무로 다시 태어날 걸 알기에 서글퍼 울지 않는단다

우리네 인생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니
떠날 시간 가까움 알면
여보게!
단장하게나
과일만도 못하면 되겠나!
서글퍼 말게나
다시 태어날 생각하며
세상에 있을 때 병든 과일 버림받듯 버림받지 말게나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익어가세나

예수 향기 남기며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세, 우리...

朋友

:: 오늘의 메시지 ::

죄의 진공(眞空)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5:21).

믿어지는가. 주께서 인류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주께서 속죄해주셨다는 두 가지 사실만 제대로 믿어진다면 믿음 생활이 흐트러질 수가 없다. 현실에서도 그렇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목숨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를 만들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전제를 완전히 체득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가 없다.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사실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당위이다. ‘희생양’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대신 제물이 되었다는 말이다. 어떻게 제물이 죄를 씻어 주는가. 왜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하는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것이 있다. 그야말로 청정한 물이 있으면 주위의 모든 더러운 물의 오염이

빨려 들어간다. 진공상태가 되면 주위의 모든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진공상태가 되어 있을 때 온 인류의 죄가 빨려 들어가 내 죄가 깨끗해진다. 온갖 번뇌에 찌든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머리 지끈거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스펀지는 더러운 것을 빨아들여 자기는 더러워지고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이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 대속의 완성! 본인이 더러워지고 찢기고 죽으심, 완전한 죄의 진공, 완전한 순결. 그래서 태어나심도 동정녀를 통해 이루셨다. 더러운과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짊어지고 이루고 부활하셨다.

혼의 번다한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고 깨어져야 한다. 대속해주신 주님처럼 나도 고난을 통하여 본래의 내가 새롭게 탄생된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다. 완전한 죄의 진공상태. 블랙홀에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태양의 수천 배 되는 별을 보면 우리 죄놈이야 주께서 온전히 대속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깨끗함, 죄 없음의 대속자 주님께서 청하신다. 택함을 받아야지.

이광주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올림 있는 삶 ::

거리에서 만난 예수님

출근하려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습니
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
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서서 책을 읽고 있
었지요. 그때 옆 칸에서 행색이 누추한 남
자 한 분이 이동해 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낡고 많은 종이를 앉아있는 승객들 무릎
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만 아무도 그것을 건들거나 읽으려 하지
않았지요. 열차가 덜경거리 누군가의 무
릎에 있던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
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어서 있는 제게
는 주지 않았지만 어떤 글이 적혀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어려
운 사정과 도움을 청하는 내용일 거라 생
각하며 지금 내 지갑에 현금이 있나? 잠시
떠올리다가 신용카드만 있다는 걸 깨닫고
는 ‘뭐 어쩔 수 없지.’하고서 읽던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날 제게는 못한 마음
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어떤 기
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동남하
던 시각장애노인이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
도 아니었고 몇 억짜리 아파트까지 소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
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동남으로 벌

었다는 기사를 읽고서 꽤 분개했었지요.
열차 안에서 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어
르신들께 건넸던 수많은 돈이 떠오르면서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더랍니다. 그 기
사를 읽은 뒤로는 ‘혹시 저 사람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종종 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못한 의심이 들려는 찰나, 마태복
음 25장 말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아
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
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
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
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
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
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
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
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보

았나이까.” 곧이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른 순간 한없이 부끄러워
져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하철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며 매일 우리와 마주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을 위해 목
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품도 아
깝다고 생각함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매달 네 가지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
다. 국내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후원하고,
아프리카 어린이와 1:1 결연을 하고 있습
니다. 매달 친구들과 모은 소정의 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해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적게나마
현금을 지니고 다닙니다. 길에서 만난 예
수님께 작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
님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서요. 다시
는 주님께 인색한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
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며 살 수 있
는 넉넉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신은혜

Good News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
안하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마귀와 악
의 영들은 간교한 체계로 거짓말을 일삼
으며 미혹의 영을 통하여 정신을 혼미하
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길
흉화복을 점쳐주고 굿판을 벌이거나 비
싼 부적을 사서 간직하고 다니라고 합니

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
관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
간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악한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굿판을 벌
이거나 비싼 부적을 강매합니다. 복을 빌
어준다고 복채를 요구하지만 가짜 소망
을 심어주는 것이지 실제적인 역사는 없
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 자들의 말
로는 결국에는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다니지만, 지푸라기
를 잡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
놓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
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
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
됐다. 3월 15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
신 누적 접종자 수는 56만 명 정도이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백신의 효능
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백신은
최신기술을 이용해 우리 몸에서 일시적
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바
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마치 바이
러스가 몸에 들어온 듯 우리 몸은 바이러
스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된다. 다만 화이
자 백신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RNA라는 유전물질을 이용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라는 유전
물질을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전달
하는 차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DNA를 실어 나르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증식능력이 없으며 우리 몸의 DNA에
끼어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
전하다. 근본적으로는 두 백신 모두 우

리 몸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하지만 투여하는 유전물
질의 종류가 다른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백신 효능
이 60~70%라고 알려져 있는데 백신 효
능이란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와 비
교해 백신이 얼마나 환자를 줄일 수 있
는지를 의미한다. 백신 효능 70%라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환자가 10
명 생긴다면 백신을 맞았을 때 3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백신 효능이
90%라면 백신을 통해 환자 수를 10명
에서 1명으로 줄일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에 65
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령에서 젊은 사람과 유사한 수
준의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 코로
나 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정부가 만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에
화이자 백신을, 65~74세는 5~6월에 아

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
했다. 요양병원, 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
원, 입소자 및 종사자도 3월 중에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아스트
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은 다른 백신과
유사한데 주사 맞은 부위에 3일 정도 통
증이 있을 수 있고,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역, 구토 등이 하루, 이
틀 정도 있을 수 있다. 백신을 맞기 전
후에는 과음, 무리한 운동, 목욕을 삼가
고 예방적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여 발
열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백신 2차 접종 후에도 백신 효능이 100%
는 아니므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 하
지만 증상이 경하거나 무증상일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바
이러스 배출도 적어 다른 사람을 감염시
킬 위험도 줄어든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외모

날씬하고 예뻐던 딸은 중학생이 되면서
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 내심 예전의
몸매를 되찾기 바랐는데, 실제로 성인이
되면서 10kg 가량이 빠져 주변에서는 다
이어트 비결을 묻는 등 더욱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들곤 했다.

그러나 공황장애 진단으로 의사의 ‘무조
건 휴식’ 권고에 일찍 퇴근했던 딸은 그
야말로 눈 깜짝할 새 급격히 비만이 되
어버렸다. 심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멀
리 와버렸고 날씬한 몸매는 로망이 되어
버린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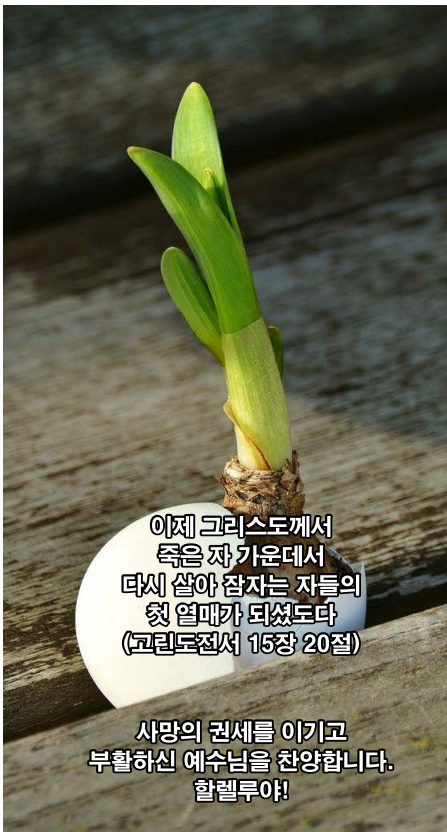
허약체질의 장애인 이모를 부축해 미용
실을 다녔던 딸은 ‘이모의 양식까지 축내
서 이모는 마르고 자신은 살찐다.’는 소리
를 들을까봐 미용실 가기가 싫다고 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사
실 그것은 여태껏 가졌던 내 생각의 일부
분이었기 때문이다.

딸은 음식섭취를 제재하는 나에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손발을 묶어서 음식
을 못 먹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임신했느냐, 똥똥하다...’,
차마 내뱉기 힘든 무례한 말들을 쏟아냈
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딸을 재단하고 판
단했으며, 때론 일괄한 동정심으로 자신
들의 진심을 전하곤 했다. 강한 자극을
받은 딸은 서슬 퍼런 모습으로 식이요법
을 하였으나 급세 무너져 절망감에 빠지
곤 한다.

어미인 나 역시 확정판향에 빠져 딸의 가
슴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한다. 그것이 최
선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했고, 나는 딸을
존중해주며 애둘러 말하지 않고 살리는
말, 응원의 말로 동기부여를 해주며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려 노력한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 한다면 하잖
아.”, “좋아,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여. 그
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 긍정과 희망이 깃든 말의
능력을! 사랑은 인내까지 포함하고 있음
을!
추성숙 집사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